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304호 2026년 6월 7일(가해)

<b>미사 안내</b>	<b>평일</b>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b>주일</b>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b>연령회</b>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1독서 : 신명기 8,2-3.14ㄴ-16ㄱ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2독서 : 코린토 1서 10,16-17	▶ 복음 : 요한 6,51-58

성가 ▶ 입당: 162 ▶ 봉헌: 216,215 ▶ 성체: 169 ▶ 파견: 15



### 사목공지

① 6월 7일(일-북미지역 대전교구 사제연수), 21일(일-연령회), 28일(일-본당행사) 피터 앤 폴 성당 파견미사가 없습니다.

② 6월 9일(화)~12일(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③ 6월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가 없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④ 6월 봉성체 안내

6월 봉성체는 6월 18일(목, 오전) 서쪽 지역, 6월 19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6월 21일~27일)

⑥ 매월 넷째 주 6월 27일(토), 28일(일) '한끼 나눔'



사목위원회

① 2027년 예비 신자 모집

2027년 3월 27일 세례식~부활성야  
교육기간 : 2026년 8월 2일~2027년 3월 27일

② 복음화 카드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 장 14 절)

※ 모든 신자가 적극 참여하시어 새 신자를 찾아 복음화 카드에 기록 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역 및 단체

① 다락방 모임

일시: 6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④ 펠시티 구역 모임

일시: 6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② 카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6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③ 쉘렉 구역 모임

일시: 6월 16일(화) 오후 3시30분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③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6월 14일(일) 오후 5시  
문의: 안린지 391-8347

⑥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6월 20일(토) 오후 5시30분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기타공지

■故김금선 우슬라 자매님이 향년 96세로(6월 3일) 선종 하셨습니다.

장례미사: 6월 16일(화) 10:30 연도: 9:30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故최영자 데레사 자매님이 향년 96세로(6월 6일)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모의밤 꽃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서상순 안나, 서두영 로사리아

※ 권지훈 베드로 신부님 영명 축일

6월 29일 월요일인 관계로 행사는 6월 28일(일)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하며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선물 용지는 예물 접수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무금 납부 안내

6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아직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무금은 성당 운영에 소중히 사용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6월 13/14일 Diocese of Honolulu Seminarian Education Fund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5월 30일/31일: \$6,557 (한끼나눔 제외)				지난주 미사 참례자 총 335 명
	주일헌금	교무금	한끼나눔 (추가)	특별헌금	
	\$3,941	\$2,020	\$1,081	\$596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STEADY AUTO</b> 유럽차 정비 전문가 문의: 808-772-2271 European car specialist

## ※미사 해설 - 성찬 전례(2) : 성찬 전례 구성과 예물 준비에 대해서

「성찬 전례는 예물 준비, 감사 기도, 그리고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2항에서 제시된 대로 각각의 분명한 특성이 있습니다.

- 1) 예물 준비에서, 빵과 포도주와 물, 곧 그리스도께서 손에 드셨던 똑같은 재료들을 제대에 가져간다.
- 2) 감사 기도에서, 하느님의 모든 구원 업적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예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 3) 빵 나눔과 영성체를 통하여,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손에서 받아 먹고 마셨듯이, 신자들은 비록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의 빵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하나의 잔에서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

첫 번째, 성찬 전례 중 예물 준비. 제물 없는 제사가 없듯이, 성찬례 준비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될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봉헌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알아봅시다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자신들의 정성과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빵이나 포도주를 비롯하여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봉헌했고, 이 봉헌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거나 성직자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1세기 이후 화폐의 발달로 인하여 예물 봉헌이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봉헌된 빵과 포도주는 제대로 옮기고 금전이나 다른 예물은 성찬의 식탁이 아닌 알맞은 곳으로 옮겨 봉헌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예물봉헌의 쓰임은 이웃을 위한 자선과 성직자 생활비, 교회 운영비, 교회 관련 건물 유지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물 준비 때, 특이한 점은 신자들이 봉헌예물을 위해 행렬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절은 20세기 초 전례 부흥 운동 때 교회 내에서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제2차 바타칸 공의회 이후 미사 전례에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빵과 포도주를 회중들의 대표가 사제에게 봉헌하기 위해 운반하고, 회중은 뒤이어 봉헌금을 바치는 행렬에 참여합니다.

성찬례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양식임을 뜻합니다. 물론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빵이 갖는 의미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생활양식으로써 “삶의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사 때 봉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봉헌한다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 강론 요약

오늘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며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현존하시는 성사입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외형은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의 만나를 넘어서는 참된 생명의 빵이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지만, 성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체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며, 성체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체성사는 또한 새 계약의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완전한 희생 제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미사는 그 희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한 십자가 희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적으로 갈바리아 십자가 아래에 서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고 믿어 왔습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상처와 약함 속으로 들어오시어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성체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사랑의 성사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체를 모시며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체를 통해 지금도 당신 교회를 먹이고 기르십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체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성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사랑하며, 성체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님, 성체 안에 참으로 살아 계신 당신을 믿습니다. 저를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고, 제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b>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b>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b>최 니콜 부동산</b>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b>메디케어 보험</b>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b>피아노 개인 레슨</b> 모든 연령대 레슨 가능 문의: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Lynnpiano123@gmail.com	<b>A'ALA Meat &amp; Seafood Inc</b>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철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b>보나 최 부동산</b>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